

FEBRUARY 2021 VOL.628

hyangjang



ALL ABOUT BEAUTY

당신을 더 아름답게 할 뷰티 노하우

NEWS-TREND 광채 피부

SPECIAL 마스크 속 피부 지키기

MAKEUP PLAY 고양이상 VS 강아지상

INGREDIENT 탁월한 배달원, 리포솜

AMOREPACIFIC

피부 속부터 차오르는 맑고 건강한 에너지
ALL NEW 미라클 씨드 에센스

Miracle Seed Essence



primera

02	NEWS 2월의 가장 핫한 뉴스	40	PRODUCT 아모레퍼시픽
06	NEWS-TREND 광채 피부	42	INGREDIENT 탁월한 배달부, 리포솜
08	MAKEUP 집콕 데이트를 위한 메이크업	44	SCENTS 사랑을 부르는 향
14	PRODUCT 2월의 잇템	46	ICON 2월의 인물 인터뷰
20	SPECIAL 마스크 속 피부 지키기	50	PLACE 디저트가 맛있는 찻집
28	MAKEUP PLAY 고양이상 vs 강아지상	52	REVIEW 민고 보는 품평단의 꼼꼼 리뷰
32	PRODUCT 헤라 루즈 홀릭	54	PRESENTS 설날 선물
36	PRODUCT 설화수	56	EDITOR'S PICK 2월의 강추템
38	PRODUCT 설화수		

발행일 2021년 2월 1일
 발행 통권 628호
 발행인 서경배
 편집인 안세홍
 발행 (주)아모레퍼시픽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
 제품 문의 080-023-5454
 제작 문의 노연서
 인쇄 (주)태신인팩 02-853-6574
 인쇄인 서명현
 기획·편집 MCK Publishing Co., Ltd
 에디터 최향진, 김희진, 이성진, 안새롬
 디자인 www.pentagramgraphic.co

※ <향장>은 WWW.APGROUP.COM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책은 전국의 아모레 카운슬러를
 통해 무료로 배포하는 방문판매용
 매거진입니다.

SINCE 1958
 <향장>은 1958년 '화장계'라는
 이름으로 창간한 이후 현재까지 64년간 628호를
 발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초의 월간 뷰티
 매거진입니다.

MAIL
 HYANGJANG@MCKOREA.COM

WEB
 WWW.APGROUP.COM

COPYRIGHT 2021
 AMOREPACIFIC


(주)아모레퍼시픽의 동의 없이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HYANGJANG JOURNAL

CANDY POP: 핑크, 그린, 레드, 옐로 등 캔디처럼 달콤한 팝 컬러가 2021 S/S 런웨이를 지배했다. 사랑스러운 컬러 포인트로

2021년 봄/여름 트렌드를 만끽할 준비를 해보자.

매일 온갖 뉴스에서 우울한 소식을 전하지만 패션과 뷰티 업계만큼은 생생하면서도 선명한 컬러로 희망을 얘기하는 중이다. 잘 꾸민 인스타그램 런웨이에는 눈이 시릴 듯한 핫핑크부터 옐로, 그린, 블루 등 사탕처럼 알록달록한 컬러의 룩이 속속 등장했다. 바비 인형이 연상되는 샤넬의 핑크 트위드 셋업부터 아크네 스튜디오의 오렌지 메가사이즈 빅 백, 1990년대를 향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블루마린의 블루 원슬더 톱까지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다양한 빛깔의 향연이 피부 광채만 살짝 살린 모델의 수수한 메이크업과 사뭇 대조적이었다. 맞다. 이번 시즌 트렌드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바로 패션과 뷰티 스타일링의 대조다. 파운데이션 등 베이스 메이크업은 최소화한 채 피부 광채에 집중한 로 룩이나 누드 혹은 피부 톤과 흡사한 핑크, 코랄 계열 컬러를 매치한 룩 등 뷰티는 계속 줄이고 줄이며 '레스 이즈 모어(Less Is More)'를 외치고 있다. 강렬한 컬러와 다양한 소재로 무장한 패션 트렌드와는 사뭇 결이 다르다. 어찌 보면 패션과 뷰티는 지금 서로 다른 일탈을 시도하는 듯 보이지만 이게 또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강 약 중간 약, 힘을 줄 곳은 주고 뺀 곳은 빼는, 포인트 스타일링의 미감이 극명하게 드러나니 이번 시즌에는 숨은그림찾기를 하듯 스타일의 포인트를 찾아내는 재미도 쏠쏠할 듯하다. 윈 컬러 스타일링의 핵심은 바로 톤온톤. 전체적인 패션 스타일링과 뷰티 포인트 컬러를 맞추면 한결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강렬한 핑크 룩 패션에는 피부결을 투명하게 살려 베이스 메이크업을 한 뒤 양 볼에 은은한 핑크색을 띠는 밤 타입 제품을 발라 생기를 불어넣은 포인트 메이크업을 조합하는 식. 통통 튀는 강렬한 컬러로 봄을 알리는 포인트 스타일링을 현명하게 즐길 때다. 



조용한 휴식을 위한 호텔 패키지

서울드래곤시티는 특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프라이빗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월 스위트 데이' 패키지를 마련했다. 최대 3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패키지로 풍선으로 꾸민 스위트룸에서 하룻밤 묵으며 스파클링 와인 한 병, 생크림 생과일 케이크, 와인, 치즈, 마카롱 등도 즐길 수 있다.

해비치 호텔앤드리조트는 장기간 투숙하며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롱텀 스테이' 패키지를 출시했다. 호텔 또는 리조트 객실 1실과 식음료 10만원 이용권, 조식 할인 혜택이 포함된 패키지로 실내외 수영장장과 사우나 등 부대시설 이용 혜택이 있으며, 보드게임 시설 '모드락' 1회 이용권 등 구성이 다양해 매력적이다.

문의 해비치 호텔앤드리조트(064-780-8000, haevichi.com), 서울드래곤시티(02-2223-7000, www.seouldragoncity.com)



구찌에몽?

귀여운 애니메이션 캐릭터에 폭 빠진 듯한 구찌의 알레산드로 미켈레는 지난번 포켓몬고 컬래버레이션 라인에 이은 도라에몽 캡슐 컬렉션을 선보인다. 이번 컬렉션은 스웨트셔츠와 티셔츠, 토트백부터 스마트폰 케이스, 리더 굿즈까지 총 40여 가지 다양한 아이템으로 선보인다. "2112년 9월 3일에 태어난 고양이 타입의 로봇 도라에몽은 노비타라는 소년을 돕기 위해 사차원 주머니를 든 채 22세기에서 왔어요. 장난기 많은 도라에몽은 취를 싫어하고 달콤한 팬케이크인 도라야키를 좋아합니다." 컬렉션을 소개하는 글의 내용이다. 이번 캡슐 컬렉션은 구찌 공식 웹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www.gucci.com



럭셔리한 홈 피크닉

재택근무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요즘, 집에서도 우아하게 즐길 수 있는 인테리어 소품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매치스패션(Matches Fashion)에서는 멜리사 모리스(Melissa Morris)가 만든 수공예 브랜드 메티에(Métier)의 홈 컬렉션 '아트 오브 리빙'을 선보인다. 장인 한 명이 한 가지 상품의 제작 공정 전체를 도맡아 수작업으로 완성하는 최고급 제품을 선보이는 브랜드답게 세계적인 종이 전문 회사 G.F 스미스(G.F Smith)와 협업해 화제를 모았다. 이 협업 라인에는 노트부터 가죽 박스, 주사위 놀이의 일종인 백 개먼 세트, 홈 카페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와인 참과 냅킨 링, 와인 홀더 등으로 구성했다.

문의 www.matchesfashion.com



NEW STAR BRAND

알리샤 키스의 뷰티

수년 동안 공식 석상이나 무대에서 노 메이크업을 고수했던 가수 알리샤 키스가 지난여름 예고한 대로 뷰티 브랜드를 론칭했다. 그녀가 디렉팅한 브랜드 키스 소울케어(Keys Soulcare)의 모토는 'Serious Skincare + Soul-nurturing Rituals'. 진정성 있는 스킨케어와 영혼을 위한 뷰티 리추얼을 모토로 동물실험을 하지 않고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컬렉션에서는 포근한 세이지와 오토밀크 향으로 지친 심신을 달래주는 캔들, 피부과 전문의와 협업해 개발한 페이스 크림, 효능적으로 만든 핸드메이드 페이스 롤러 세 가지 아이템을 만날 수 있다. 앞서 공개된 제품 이외에도 올해 풀 컬렉션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문의 www.keysoulcare.com

새로워진 프리메라 미라클 씨드 에센스

프리메라의 넘버원 에센스 미라클 씨드 에센스가 더 산뜻해지고 더 놀라운 효능으로 무장했다. 수천 년의 시간을 거치면서도 각종 영양소와 에너지를 고스란히 보존하는 강인한 기운을 품은 연꽃 씨앗과 스스로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연꽃의 정화 능력을 고스란히 담은 프리메라의 미라클 씨드 에센스. 2021년 한 단계 진보한 미라클 씨드 에센스는 씨앗의 영양 성분을 농축하는 프리메라만의 씨드-프리미엄 기술을 사용한 로터스 씨드 액티베이터™ 성분을 함유해 이전 대비 폴리페놀 함량이 무려 140%나 증가한 것이 특징. 이 결과 항산화 기능은 물론, 피부 장벽과 보습 기능이 강화되고 피부 진정 효과가 더욱 확실해졌다. 여기에 피부 속이 건조한 증상 해결에 효과적인 슈가 플루이드, 그리고 비타민 콤플렉스가 함유되어 피부를 보호하고 속부터 건강하게 개선해 맑고 촉촉한 피부로 바꿔준다.



HERMES



HERMES



SALVATORE FERRAGA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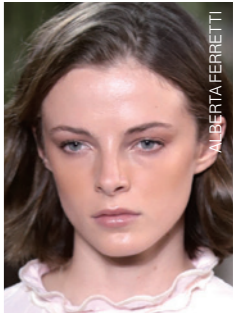
BLUMARINE



헤라 아이글로우미 컬러 글로우 스트로크 체크 앤 아이, #01 캔디스/ #02 줄리, 각각 3.5g, 3만8천원.



SALVATORE FERRAGAMO



ALBERTA FERRETTI

2021년 봄/여름 시즌 뷰티 트렌드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글로우'다. 정교하게 쌓아 올린 두꺼운 베이스 메이크업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투명한 베이스는 물론, 반짝이는 빛이 감도는 아이 메이크업이나 건강한 혈색이 도는 듯한 블러셔, 체리처럼 탐스럽고 촉촉한 립스틱까지 모든 메이크업의 결은 글로우로 귀결된다. 피부가 비칠 정도로 광을 표현하는 데 집중한 아크네 스튜디오의 메이크업부터 에르메스, 블루마린의 고급스러운 윤광 베이스, 생기 있는 은은한 핑크빛 글로스 하나로 세련된 룩을 완성한 살바토레 페라가모까지 여러 쇼에서 선보인 글로우 메이크업은 대범하면서도 재미있는 방식으로 표현됐다. 이런 트렌드를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 아이템은 두 가지. 자연스러운 피부 광채를 위한 가볍고 촉촉한 파운데이션과 멀티 글로우 밤이다. 얼굴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베이스 메이크업의 글로우만 확실하게 표현해도 성공적. 파운데이션을 피부에 얇게 바르기 위해서는 쫀득하고 수분감 있는 파운데이션이 필수다. 설화수의 퍼펙팅 파운데이션은 파뽀결과 모공 사이에 끼는 일 없이 매끈하게 발리는 것은 물론, 들뜨지 않고 오랜 시간 고급스러운 광채가 유지되는 것이 특징. 여기에 눈가와 광대뼈에 생기를 불어넣는 글로우 밤이 더해지면 메이크업에 한층 더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눈가나 입술, 광대뼈에 하이라이터로 모두 사용 가능한 헤라의 아이글로우미 컬러 글로우 스트로크 체크 앤 아이는 촉촉한 밤 제형으로 체온에 자연스럽게 녹아 모공에 끼는 현상 없이 쫀득하게 발리면서도 자연스러운 광택을 선사한다. 과한 컬러 메이크업이나 하이라이팅 없이 빛나는 광채 표현만으로도 한층 더 우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룩을 완성할 수 있다.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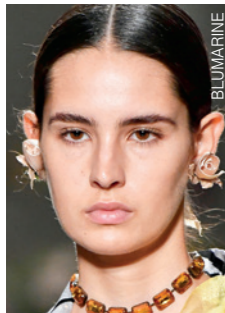
찬란하게 빛나는

이번 시즌 베이스는 물론, 입술과 볼, 아이 메이크업까지 자연스럽게 빛나는 광채 표현이 핵심.

editor AHN SAE ROM



설화수 퍼펙팅 파운데이션 SPF17/PA+. 35ml, 17호 바닐라, 7만원.



BLUMARINE



BLUMARINE



ALBERTA FERRETTI



HERMES



SALVATORE FERRAGAMO

ACNE STUDIOS



스위트 홈

이늑한 집에서 그와 함께 보내는 밸런타인데이.

집콕 데이트를 할 때도 예뻐 보이는 홈 메이크업 팁.

photographer SHIN SUN HYE
editor CHOI HYANG JIN

GLOW SKIN

피부에 건강한 윤기가 돌면 파운데이션을 바르지 않아도 아름답다. 영양을 풍부하게 함유한 스킨케어 제품을 꼼꼼히 듬뿍 바른 뒤 보기 싫은 잡티만 컨실러로 살짝 가리면 충분하다. 입술에는 설화수 립세럼스틱 같은 텡티드 립밤을 가볍게 발라 혈색과 윤기만 더할 것.



PINK MLBB

청순한 내추럴 룩을 연출하고 싶다면 헤라 루즈 홀릭 #100 소울 핑크처럼 윤기 나는 텍스처에 톤이 다운된 핑크 컬러의 MLBB 립스틱을 입술에 가볍게 바를 것. 입술 선을 살려 정교하게 바르기보다는 입술에 툭툭 두드린 다음 손가락으로 문질러 퍼뜨리는 것이 포인트.



SUNSET ORANGE

따스한 느낌이 드는 내추럴 룩을 연출하는 핵심은 컬러 선택. 헤라 루즈 홀릭 매트 #437 모드 오렌지를 입술에 짙게 채워 바른 후 면봉으로 입술 가장자리를 살짝 스머징하면 내추럴한 립 메이크업이 완성된다.



SWEET SEXY LIPS

입술에 섹시한 레드 립스틱을 바르고도 꾸미지 않은 듯한 '꾸안꾸' 메이크업을 원하는가? 헤라 루즈 홀릭 #300 서울 레드를 손가락에 묻혀 입술에 발라 번진 듯한 느낌으로 연출하고, 손가락에 남은 립스틱을 양 볼에 두드려 홍조를 연출해볼 것.

MODEL: CHOI APA, SON WON IK, MAKEUP: JAMIE YOON, KIM DONG HYUN (AMORE PACIFIC LUXURY MAKEUP TEAM),
HAIR: LEE HYE YOUNG, STYLING: PARK MI KYUNG



GIRL LIKE LOOK

사랑의 설렘으로 가득한 사랑스러운 무드를 연출하는 데는 블러셔가 제격! 입술에 헤라 루즈 홀릭 매트 #498 모브 우드를 바르고, 헤라 섀도 듀오 #01 보니를 브러시에 묻혀 광대뼈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그레데이션하면 끝.

MY BEAUTY VALENTINE

사랑하는 사람들과 맛보는 달콤한 디저트,
그리고 그 속에 비밀스럽게 숨겨진 밸런타인데이 선물들.

photographer PARK JAE YONG
editor AHN SAE ROM

(왼쪽부터)설화수 에센셜 립세럼스틱,
#02 블라썸 세럼, 4만원. 설화수 에센셜
립세럼스틱, #01 애플리콧 세럼, 4만원.
설화수 에센셜 립세럼스틱,
#7 딥 베리, 4만원.

#립세럼스틱
#보습충전
#탄력케어

설화수 에센셜 립세럼스틱

립밤과 립스틱의 하이브리드 버전으로 입술에 바르면 은은하게 반짝이며 얼굴을 자연스럽게 한 톤 밝혀주는 립 세럼. 세럼 베이스의 이중 보호막으로 오랜 시간 입술을 촉촉하고 생기 넘치게 유지해주며 행인유(삼구씨 기름)와 엘라스틱 콤플렉스 성분을 담아 쫀득하게 밀착해 입술을 매끄럽게 만들어준다.

구달 파리 뽀띠뜨 쉐리 오 드 퍼퓸, 30ml, 11만8천원.

#스위트플로럴
#머스크
#데일리향수



구달 파리 뽀띠뜨 쉐리 오 드 퍼퓸

아니 구달이 스무 살을 맞은 딸 까밀 구달에게 사랑을 담아 선물한 향수. 풋풋하면서도 매혹적인 여성미가 느껴지는 향으로 스타일에 따라 완전히 다른 느낌을 자아내는 것이 특징이다. 향기로운 로즈 머스크와 그래스 향을 기본으로 복숭아, 배, 바닐라의 달콤한 향이 더해져 상큼하면서도 달콤한 잔향이 매력적이다.

헤라 옴므 블랙 퍼펙트 스킨. 120ml, 5만5천원.

#남성안티에이징
#블랙퍼펙트블렌딩™
#피부활력스킨

HERA
H O M M E

B L A C K
P E R F E C T S K I N

헤라 옴므 블랙 퍼펙트 스킨

땅속의 다이아몬드라는 수식어를 가진 블랙 트리플과 생명의 나무 열매로 통하는 아시아베리 추출물의 복합 원료로 이루어졌다. 이를 블랙 퍼펙트 블렌딩 기술로 담아 외부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강력한 에너지를 불어넣는다. 피부 항산화 효과와 과학적인 피부 구조 모사 기술로 타고난 듯 생기 있고 윤기 나는 피부로 가꿔주는 스킨.

헤라 옴므 매니시모 인텐시브 스킨. 100ml, 7만원.

#퍼스트스킨
#감각적인우드향
#청량감과수분감

MANISSIMO

헤라 옴므 매니시모 인텐시브 스킨

스킨케어 첫 단계에 발라 피부에 활력과 수분을 공급하는 퍼스트스킨 매니시모의 시그니처인 리코리스 우드와 오드 우드의 부드럽고 목직한 향이 어우러져 고급스러우면서도 남성적인 잔향이 특징이다. 자작나무와 편백나무 유래 성분을 함유해 외부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수분 보호막을 형성한다.

아모레퍼시픽 트리트먼트 엔자임 필 클렌징 파우더, 55g, 6만8천원.
아모레퍼시픽 트리트먼트 엔자임 클렌징 폼, 120g, 4만2천원.

#효소클렌징
#각질제거
#피부장벽케어



아모레퍼시픽 트리트먼트 엔자임 필 클렌징 파우더 & 엔자임 클렌징 폼

녹차유산균 유래 효소*가 부드럽게 각질을 케어함과 동시에 피부 장벽도 지켜주는 클렌저 2종.

2배 강화된 녹차유산균 유래 효소* 성분이 불필요한 각질만을 부드럽게 제거해 맑고 건강한 피부를 선사하는 아모레퍼시픽의 베스트셀러. 두 제품 안에 함유된 녹차 프로바이오틱스* 효능이 클렌징 시 손상받기 쉬운 피부 장벽을 지켜주어 건강한 피부 컨디션을 만들어 준다.

*락토바실러스 발효용해물 함유(특허등록번호 10-199327)

프리메라 오가니언스 워터, 180ml, 3만원.
프리메라 맨 오가니언스 트리트먼트 워터, 180ml, 3만원.

#촉촉한토너
#피부진정
#5 Free



프리메라 오가니언스 워터 & 맨 오가니언스 트리트먼트 워터

스킨케어의 시작인 토너 명가 프리메라의 오가니언스 워터 2종, 프리메라의 베스트셀러 토너인 오가니언스 워터는

피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발아검은콩 추출물과 피부 진정에 탁월한 여성초, 쑥새싹 추출물 등 자연 유래 성분으로 이루어져 순하게 스며들어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게 만든다. 피부 타입에 상관없이 모든 남성이 사용할 수 있는 맨 오가니언스 트리트먼트 워터는 마로니에 씨앗과 캐모마일 추출물로 이뤄져 산뜻하게 스며들어 풍부한 수분감을 제공하기 때문에 데일리 스킨케어에 제격이다.



마스크 속 피부 긴급 점검

벌써 1년 가까이 마스크 속에 뽁뽁 숨겨온 내 피부는

과연 어떤 상태일까? 언젠가 마스크를 훌훌 벗어 던질 그날을 기대하며

피부 상태를 냉정하게 점검해보자.

photographer SHIN SUN HYE(인물), CHOI MIN YOUNG(제품)

editor LEE SUNG JIN

피부가 건조해졌다

아모레퍼시픽이 지난해 11월 국제 학술지<스킨 리서치 앤드 테크놀로지>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기간 마스크를 끼고 생활하는 경우 주변 피부가 무척 건조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와 뺨의 수분량에는 변화가 없는 반면, 턱과 입 주변은 수분율이 20% 이상 감소한 것. 메마른 피부를 방지하려면 노화로 이어지므로 얼굴이 땅기는 느낌이 든다면 바로 보습 케어를 시작해야 한다. 왕대나무 수액의 힘으로 피부를 진정시키고 근본적으로 촉촉하게 만드는 화장품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아모레퍼시픽 보태니컬 에센셜 세트
피부를 진정시키고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보태니컬 수딩 토너(200ml)와 부드러운 텍스처로 피부를 감싸 윤기와 광채를 더해주는 보태니컬 하이드레이팅 플루이드(160ml) 세트, 17만원.



피부가 생기를 잃었다

생기 없이 푸석하고 꺼진 피부를 그대로 방치하면 피부 속 에너지가 고갈되어 상태가 더욱 나빠진다. 피부에 활력을 불어넣는 안티에이징 케어가 시급한 때. 이때 가뜰이나 생기가 없는데 본인의 피부에 맞지 않는 제품을 써서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다면 누구나 인정하는 믿음직한 화장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50여 년에 걸친 고려 인삼 연구 결과로 탄생해 피부 자생력을 키워 탄력을 높이고 노화의 흔적을 완화해주는 자음생크림은 2012~2015년, 2017~2019년 동안 백화점 안티에이징 크림 부문 판매 1위를 차지한 부동의 스테디셀러로 그 효능을 믿을 만하다.



설화수 자음생크림 퍼펙팅
강력한 활성 뷰티사포닌 성분인 진세노믹스™가 피부의 자생력을 키우고, 8년간 황기가 피부를 보호해 생기 넘치고 탄탄한 피부로 가꿔준다. 60ml, 25만원.



주름이 깊어졌다

마스크 속은 주름이 생기고 깊어지기 딱 좋은 환경이다. 피부가 건조해 잔주름이 늘고 활력을 잃어 꺼지는 데다 노화로 세로 모공이 서로 연결되면 이 역시 주름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노화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팔자주름이 생기거나 깊어질 수도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집중적으로 모공과 주름을 개선해줄 스팟 케어 제품. 성분의 특성상 밤에 발라야 하고, 낮에 바르다면 자외선 차단제나 마스크로 햇빛을 가려야 최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레티놀 제품을 사용할 최적기라고 할 수 있다.

아이오펜 레티놀 포 링클 0.1%, 0.3% 레티놀을 안정화해 최적의 함량으로 함유한 주름 방지 제품. 2주 만에 탁월한 안티에이징 효과를 볼 수 있다. 0.1%(30ml, 9만원) 제품을 써서 제형에 익숙해지면 0.3%(20ml, 13만원) 제품을 쓰는 것이 이상적이다.

탱탱한 탄력과 윤기가 사라졌다

피부 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에스테틱에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마음 편히 마사지를 받기도 쉽지 않은 시대다. 서글픈 것이 사실이나 에스테틱션의 노하우를 담아 집에서 에스테틱의 관리 못지않은 효과를 내줄 제품이 쏟아져 나온 것은 그나마 반가운 일. 윤기를 잃어 푸석해지고 탄력이 떨어져 축 처진 피부가 걱정된다면 이런 홈 에스테틱 라인을 선택해볼 것. 효과를 빨리 볼 수 있게 고안한 초강력 안티에이징 제품을 골라 쓴다면 피부결이 정돈되고 팽팽한 탄력과 빛나는 윤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헤라 에이지 어웨이 에스테틱 BX 크림 인체와 99.9% 유사한 리얼 콜라겐과 저분자 콜라겐이 피부를 감싸 탱탱한 탄력과 빛나는 윤기가 오래 유지된다. 50ml, 12만원.



피부 컨디션이 급격하게 나빠졌다

조금씩 쌓인 노화의 흔적이 어느 날 문득 눈에 띄거나 급하게 홈 파티 일정이 잡혀 마스크를 벗고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때가 되면 피부 상태를 빠르게 개선해줄 명약이 절실하다. 이때 도움이 되는 것이 효능이 탁월한 안티에이징 성분을 압축해 빠른 시간 내에 피부에 젊음의 에너지를 되찾아줄 앰플. 특히 피부가 재생되는 밤 시간에 작용해 피부의 컨디션을 빠르게 끌어올려주는 나이트 앰플이 제격이다.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줄 크림까지 함께 쓰면 어느새 피부 걱정은 없던 일이 되어 있을 것이다.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앰플 스타터 세트
 피부의 시작부터 끝까지 단기간에 입체 리뉴얼 안티에이징 효과를 선사하는 앰플(0.6g + 7ml) 2팩어와 피부에 부드럽게 녹아 밀도있고 탄탄한 피부로 바꿔주는 크림(15ml)의 타임 레스폰스 베스트 듀오로 구성된 세트. 32만원.



피부 트러블이 극심해졌다

마스크가 닿은 부분에 돌은 뾰루지, 붉게 성난 피부... 가뜰이나 예민한데 마스크까지 쓰다 보니 피부 트러블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다. 게다가 환절기를 앞두고 피부 컨디션이 흐트러질 일이 걱정이라면 진정과 컨디션 관리에 매진할 것. 연약해진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키고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 피부를 회복시켜주는 크림으로 매일 꾸준히 피부 상태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다. 무리하게 각질을 제거를 하거나 피부에 맞지 않는 과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피부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1b**



프리메라 알파인 베리 워터리 크림 소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피토스테롤이 약해진 피부를 진정 후 컨디션을 회복시키며 알파인 베리 콤플렉스™로 피부 속까지 생기와 수분을 채워주는 크림. 50ml, 3만9천원.



MODEL: JUNG CHEONG SOL, MAKEUP: JAMIE YOON, DONG HYUN KIM (AMORE PACIFIC LUXURY MAKEUP TEAM), HAIR: LEE HYE YOUNG, STYLING: PARK MI KYUNG



고양이상 vs 강아지상

똑같은 얼굴, 똑같은 화장품이라도 어떻게 바르는지에 따라 인상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

같은 제품으로 **요염한 고양이**와 **귀여운 강아지** 이미지를 자유롭게 오가는 법.

LOOK 1. CAT'S EYES

버건디 아이섀도 하나로 고양이 같은 날렵한 눈매를 연출할 수 있다.

아이섀도를 눈꼬리를 따라 날렵한 형태로 바르는 것이 요령.



STEP 1 헤라 섀도 듀오 #12 페피 중 버건디 컬러인 크림슨을 아이홀을 따라 반달 모양으로 얇게 바른다.
STEP 2 크림슨을 아이섀도 틱에 묻혀 아이라인을 그리듯 눈꼬리를 길게 빼 한 번 더 덧바르고, 아랫눈썹 라인에도 가볍게 바른다. **STEP 3** 얇은 브러쉬나 면봉을 이용해 눈머리에 크림슨 컬러로 화살표처럼 날렵하게 라인을 그린다. 입술에는 헤라 루즈 홀릭 #100 소울 핑크를 바른다.



photographer PARK HYUN JIN
 editor CHOI HYANG JIN

LOOK 2. PUPPY'S EYES

고혹적인 버건디 컬러로도 강아지처럼 귀여운 눈매를 연출할 수 있다. 눈꼬리를 아래로 내려오게 바르고,

아랫눈썹 라인 뒤쪽에 조금 더 진하게 발라 눈매가 처져 보이게 한다.



STEP 1 헤라 섀도 듀오 #12 페피 중 버건디 컬러인 크림슨을 아이홀을 따라 반달 모양으로 가볍게 바른다.
STEP 2 크림슨을 아이섀도 틱에 묻혀 눈꼬리의 삼각 존을 메우듯 바른다. 이때 라인 끝이 아래를 향하게 한다.
STEP 3 위아래 속눈썹에 마스카라를 등백 발라 눈매가 동그래 보이게 연출한다. 입술에는 헤라 루즈 홀릭 #158 디자이너를 바른다.

헤라 섀도 듀오 #12 페피. 4g, 3만8천원. 은은한 글리터가 함유된 샴페인 컬러와 버건디 컬러인 크림슨, 두가지 컬러로 구성된 섀도.



LOOK 3. CAT'S EYE LINE

고양이 룩의 정석은 샤프한 아이라인. 다음 세 단계만 따라하면
곰손도 쉽게 썬 아이 라인을 그릴 수 있다.



STEP 1 파우더나 스킨 톤 아이섀도를 눈가에 살짝 발라 유분을 없앤 뒤 헤라 아이 디자이너 펜슬 01호
블랙으로 속눈썹 라인을 따라 아이라인을 그린다. **STEP 2** 눈꼬리 끝부터 45도 위쪽으로 원하는 길이만큼
아이라인의 가이드 선을 그린다. **STEP 3** 가이드 선 끝 지점부터 아이라인의 5분의 4 지점까지 삼각 존을
메우듯 라인을 채우고, 입술에는 헤라 루즈 홀릭 #300 서울 레드를 바른다.



LOOK 4. PUPPY'S EYE LINE

아이섀도와 마찬가지로 아이라인을 처지게 그리고, 아랫눈썹 라인 끝 쪽의 삼각 존을 부드럽게 메우는 것이 핵심.
펜슬 대신 아이섀도를 활용하면 눈매를 더욱 부드럽게 연출할 수 있다.



STEP 1 파우더나 스킨 톤 아이섀도를 눈가에 살짝 발라 유분을 제거한 뒤 헤라 아이 디자이너 펜슬 01호
블랙으로 속눈썹 라인을 따라 아이라인을 그린다. **STEP 2** 아랫눈썹에 눈꼬리로 갈수록 도톰하게
라인을 그린다. **STEP 3** 아랫눈썹 라인을 부드럽게 스며정한 뒤 눈앞머리에 스파클링 아이섀도를 살짝 발라
귀여운 느낌을 더한다. 입술에는 헤라 루즈 홀릭 매트 #410 서울리스타를 바른다.

MODEL : KIM MEE HEE, MAKEUP: JAMIE YOON, JANE PARK (AMORE PACIFIC LUXURY MAKEUP TEAM),
HAIR: PARK CHANG DAE, STYLING: PARK MI KYUNG

헤라 아이 디자이너
펜슬 01 블랙, 0.35g,
2만5천원. 부드럽게
발리고, 스며지가 간단한
동시에 밀착된 후에는
번짐없이 오래 지속되는
펜슬 아이라이너.



모던한 매력을 더한 뉴 클래식 립스틱

헤라의 시그니처 립스틱 루즈 홀릭이 가장 컨템퍼러리한 도시, 서울을 배경으로 새롭게 탄생했다. '어떤 상황'에서도 편안한 슬라이딩으로 완벽한 룩을 선사하는 텍스처와 한국 여성의 피부 톤에 꼭 맞게 테일러드된 25가지 컬러로 선보이는 헤라 루즈 홀릭과 루즈 홀릭 매트를 심층 분석했다.

photographer PARK HYUN JIN
editor CHOI HYANG JIN

헤라 루즈 홀릭 & 루즈 홀릭 매트 사용 직후 및 사용 8시간 후 설문조사 결과

*헤라 루즈 홀릭 사용 8시간 후 수분, 컬러, 광 지속 효능 측정 및 설문조사 결과
시험 대상: 50~69세 여성 32명 / 시험 기관: 아이이씨코리아(주)
시험 기간: 2020.10.12, 2020.10.16

헤라 루즈 홀릭 사용 직후



헤라 루즈 홀릭 사용 8시간 후



헤라 루즈 홀릭 매트 사용 직후



헤라 루즈 홀릭 매트 사용 8시간 후



립스틱에 바라는 모든 것

립스틱을 선택하는 순간을 떠올려보자. 먼저 매혹적인 컬러에 끌리고, 입술에 닿는 순간 느껴지는 텍스처와 미끄러지듯 잘 발리는지 그리고 컬러가 눈에 보이는 그대로 발색되는지, 입술의 잔주름까지 매끄럽게 감싸주는지 등을 꼼꼼히 따지게 된다.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촉촉한 느낌이나 컬러가 오래 지속되지 않으면 최종 선택에서 탈락시키곤 한다. 즉 컬러, 발색력, 텍스처, 발림성, 수분감과 영양감, 지속력까지 모든 조건을 완벽히 충족해야만 선택한다. 오랜 시간 많은 여성들에게 사랑받았던 것은 이 조건을 모두 갖춘 훌륭한 립스틱이라는 뜻. 헤라 루즈 홀릭이 대표적인 예다. 게다가 새롭게 선보이는 루즈 홀릭은 세련된 패키지에 우리나라 여성의 피부 톤에 꼭 맞는 컨템퍼러리한 감각적인 컬러까지 더해 한층 더 완벽해졌다. 한마디로 립스틱의 마스터피스 탄생한 것이다.

개인의 매력을 극대화하는 컬러와 텍스처

루즈 홀릭 20가지 컬러, 루즈 홀릭 매트 5가지 컬러로 총 25가지 컬러를 카운슬러를 통해 선보이는 헤라 루즈 홀릭의 모든 컬러는 우리나라 여성의 라이프스타일과 피부 톤에 맞춘 중간 정도 채도의 컬러들로 어떤 것을 선택하든 개개인이 지닌 아름다움을 최상으로 이끌어내줄 것이다. 게다가 어떤 각도에서 보아도 균일하게 빛나는 스킨 글로우 텍스처가 입술의 결을 자연스럽게 감싸주며, 풍부한 보습 성분이 주름 사이사이에 촘촘히 스며들어 끈적이지거나 각질이 부각되는 일 없이 촉촉함과 광택감을 무려 8시간 동안 유지한다. 답답한 느낌 없이 편안한 건 기본이다. 또한 건조하거나 갈라지는 등 입술 상태에 상관없이 편안한 슬라이딩 효과를 선사해 어떤 상황에서도 쉽고 빠르게 편안하게 완벽한 입술을 연출할 수 있다. 루즈 홀릭 매트는 부드럽게 밀착해 보습보송하게 마무리되는 일명 '겔보습촉' 텍스처로 매트 립스틱 특유의 불편한 느낌 없이 세련된 매트 립을 연출할 수 있다. 우리가 립스틱에 기대하는 모든 조건을 갖춘 완벽한 립스틱을 찾고 있다면 헤라 루즈 홀릭과 루즈 홀릭 매트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HERA ROUGE HOLIC & ROUGE HOLIC MATTE BEST COLORS

헤라 루즈 홀릭과 루즈 홀릭 매트 25가지 컬러 중 <향장>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엄선했다. 다음 11가지 컬러는 필수, 그 외 컬러는 카운슬러와 상담해 테스트해보길.



헤라 루즈 홀릭
한 번의 터치만으로도 부드럽게 글라이딩되며 입술의 각질을 가라앉히고 잔주름을 메우는 동시에 풍부한 영양감으로 자연스러운 스킨 글로우를 더해주는 립스틱. 우리나라 여성의 라이프스타일과 피부톤에 맞는 중간 정도 채도의 20가지 세이드로 설계되었다. <향장>이 선택한 6가지 머스트해브 컬러를 공개한다.

1. 헤라 루즈 홀릭 #100 소울 핑크.
2. 헤라 루즈 홀릭 #187 트윌리.
3. 헤라 루즈 홀릭 #273 씨네마틱.
4. 헤라 루즈 홀릭 #468 모드.
5. 헤라 루즈 홀릭 #300 서울 레드.
6. 헤라 루즈 홀릭 #314 데어링.

헤라 루즈 홀릭 매트
시간이 지날수록 입술의 주름이 부각되거나 입술이 건조해지며 각질이 일어나는 일반 매트 립스틱과 달리, 속은 촉촉하고 영양감이 느껴지면서도 겉은 적당히 보송보송한 텍스처로 마무리되어 하루 종일 입술이 편안하다.

7. 헤라 루즈 홀릭 매트 #96 스테인드.
8. 헤라 루즈 홀릭 매트 #311 슬리드 레드.
9. 헤라 루즈 홀릭 매트 #299 비터 스위트.
10. 헤라 루즈 홀릭 매트 #437 모드 오렌지.
11. 헤라 루즈 홀릭 매트 #198 델리카시.

헤라 루즈 홀릭을 추천하는 3가지 이유

POINT 1

한국 여성에게 꼭 맞는 모던한 25가지 컬러 세이드

POINT 2

8시간 동안 지속되는 밀도있는 컬러와 텍스처

POINT 3

입술 컨디션에 상관없이 편안한 텍스처

PICK YOUR COLORS

입술에 발라본 헤라 루즈 홀릭과 루즈 홀릭 매트의 베스트 컬러들. 한 번만 발라도 눈에 보이는 그대로 발색되는 놀라운 효과를 보여준다.

HERA ROUGE HOLIC



#100 소울 핑크



#187 트윌리



#273 씨네마틱



#468 모드



#300 서울 레드



#314 데어링

HERA ROUGE HOLIC MATTE



#311 슬리드 레드



#437 모드 오렌지



#299 비터 스위트



#96 스테인드



#198 델리카시





힘 잃은 피부를 위한 보약

피부 컨디션이 나빠지는 시기, 피부의 힘을 길러 윤택하게 되돌리고 싶다면
설화수 명의본초앰플로 8주간 관리해보자.

photographer PARK JAE YONG
editor CHOI HYANG JIN

추천 포인트

POINT 1

단기간
초집중 케어

POINT 2

엄선된
진귀한 원료

POINT 3

피부가 윤택해 귀티나는
인상으로 케어

설화수
명의본초앰플

①

진귀한 한약재만 모은 명의진™

아모레퍼시픽이 장인 정신으로 연구하고 기린 인삼을 비롯해 감초, 당귀, 천궁, 대조(대추)로 구성된 명의진™ 성분이 흐트러지기 쉬운 피부를 다독이고 힘을 보충해 윤택하고 건강한 피부로 가꿔준다.

②

도톰하고 농축감 있는 텍스처

2주 분이 들어 있는 용기 속 고농축 앰플이 바르자마자 피부를 부드럽게 감싸고, 농축된 영양을 피부 깊숙이 전달해 8주간 바르면 거칠고 푸석한 피부가 몰라보게 매끄럽고 윤택해진다.

③

8주 집중 프로그램

외부 환경의 변화나 스트레스 등으로 피부가 전반적으로 힘을 잃었을 때 8주간 집중적으로 사용하면 단기간에 피부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리도록 고안된 제품.

설화수 명의본초앰플
귀한 한약재 성분이
본연의 힘을 강화해
윤택한 피부로
가꿔준다. 8ml×4병,
20만원.

“한 번 써보면 절대 끊을 수 없는, 마법 같은 변화를 가져다주는 제품.”
-<마리끌레르> 뷰티 디렉터 **윤희진**

“극건성 피부도 촉촉하게 가꿔줘 겨울이면 어김없이 찾게 된다.”
-뷰티 콘텐츠 디렉터 **이성진**

“비싼 값을 한다. 한 번만 발라도 피부가 촉촉하고 탱탱해지는 느낌이 손끝에 전해진다.”
-프레스 에디터 **안새를**

하이엔드 스킨케어

오랜 세월 한결같은 높은 판매고와 열렬한 팬층이 그 효과를 입증하는 베스트셀링 안티에이징 라인이 있다. 그 주인공인 럭셔리 스킨케어의 대명사, 설화수 진설 라인의 효능을 경험해보길.

photographer PARK JAE YONG
editor CHOI HYANG JIN

설화수 진설에센스 & 진설크림

1

강인한 생명력의 근원, 적응

생명력이 강인해 예로부터 약재로 사용해온 소나무. 설화수 연구원들은 14년간 소나무를 연구한 끝에 전세계 산림의 단 0.00004%에만 분포하는 귀한 금강송림 적응의 폭발적인 생명 에너지를 진설 라인에 담았다.

2

세포 수명을 늘리는 DAA

1년에 단 한 번 채취해 30일간 무려 11단계의 공정을 거친 끝에 탄생하는 진설의 주성분은 DAA. 적응 1kg에서 단 2g만 얻을 수 있는 DAA는 세포의 수명까지도 통제할 수 있는 진귀한 안티에이징 성분이다.

3

피부의 시간을 지배하는 안티에이징 결정체, Red Treasure™

설화수는 DAA의 놀라운 힘을 피부에 온전히 전달하기 위해 유효 성분을 캡슐 형태로 안정화한 나노 캡슐로 DAA를 보석의 결정 같은 형태로 만들었다. 이렇게 탄생한 안티에이징 결정체 레드 트레저™(Red Treasure™)는 피부 세포의 유전자 단계에 직접 작용해 노화 현상을 억제하는 것을 넘어 피부의 생명 자체를 연장하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다.

추천 포인트

POINT 1

진귀하고 값비싼
안티에이징 성분

POINT 2

럭셔리하고
감각적인 텍스처

POINT 3

다각도 입체
안티에이징 케어

설화수 진설에센스 안티에이징 결정체인 레드 트레저™와 진귀한 산양삼 추출물을 담아 피부의 탄력과 생기, 주름을 다각도로 개선해주는 360도 입체 안티에이징 케어 세럼. 50ml, 38만원.

설화수 진설크림 레드 트레저™와 산양삼 추출물이 피부 근원의 힘을 길러 자생력을 강화해주는 에너지 안티에이징 크림. 60ml, 47만원.

“처음 발랐을 때 받은 충격을 잊을 수 없다. 단 하루 만에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

-뷰티 콘텐츠 디렉터 최향진

“쫘득하고 풍부한 영양이 느껴지는 텍스처가 일품이다. 피부가 건조할 틈 없는 느낌!”

-<마리끌레르> 뷰티 에디터 김상은

“값이 비싸도 불티나게 팔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 돈이 아깝지 않은 최고의 스킨케어 제품.”

-뷰티 콘텐츠 디렉터 김희진

탄력 선은 살리고, 주름 선은 잡아라

탄력과 주름, 어느 하나 놓치는 일 없이 관리하고 싶다면 무너지는 탄력 선은 살려주고, 깊어지는 주름 선은 잡아주는 혁신적인 라인 안티에이징 기술을 탑재한 아모레퍼시픽 라인에이징 코렉터를 추천한다.

photographer PARK JAE YONG
editor CHOI HYANG JIN

추천 포인트

POINT 1

30년의 생명력을 지닌
차나무 뿌리 사포닌

POINT 2

10부위의 주름선
5부위의 탄력선 개선*

POINT 3

매일매일 경험하는
피부 코르셋

아모레퍼시픽 라인에이징 코렉터

1

라인에이징™ 솔루션

아모레퍼시픽의 라인에이징 코렉터는 고온 피부와 인상을 좌우하는 15군데 주요 부위의 선 노화를 잡아주는 라인에이징™ 솔루션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했다. 늘어진 탄력선은 팽팽하게 다시 잡아주고, 깊어진 주름선의 흔적은 똑똑하게 개선시켜 젊고 건강한 피부의 동반자가 되어 줄 것이다.

2

30년생 차 뿌리가 품은 생명력

서른 번의 겨울을 이겨낸 30년생 차나무 뿌리 사포닌의 강력한 에너지가 피부의 근력을 바로 세워 단기간에 탄탄한 피부로 바꾸어 준다. 이와 함께 펩타이드 5종 포몰러와 레티놀 성분이 더해져 더욱 빠르고 강력한 라인-안티에이징 효과를 실감할 수 있다.

3

쫄쫄한 타이팅 텍스처

유효 성분이 농축된 머랭같이 쫄쫄한 새로운 감각의 텍스처는 바르는 순간 특유의 탄력 상승감과 함께 힘을 잃어 늘어진 피부를 긴장감 있게 조여주는 듯한 힘을 느낄 수 있다.

* 만 50세 이상 여성 31명 대상 4주간 인체적용시험
결과기간 : 2020년 3월 18일~4월 17일
시험기관 : (주)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터

아모레퍼시픽
라인에이징 코렉터
30년 차나무 뿌리
사포닌과 펩타이드 5종
성분의 힘으로 노화된
탄력선과 주름선을
단번에 개선해 주는
코렉터. 30ml, 30만원.

“빠르게 흡수되어 메이크업이
밀리지 않고 피붓결이
확연히 매끄럽게 표현된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아영**

“효과는 물론이고
텍스처와 향까지 뛰어나
오감을 만족시키는 세럼.”

-뷰티 콘텐츠 디렉터 **김희진**

“고질이던 눈가의 새 발
주름은 물론 목주름도 열리는
느낌이 든다.”

-뷰티 콘텐츠 디렉터 **이성진**



HERA

AGE AWAY
AESTHETIC
BX83 LIPOSOME
BX PEPTIDES + REAL COLLAGEN

ADVANCED CELL SCIENCE™

최고의 성분 배달부, 리포솜

'장까지 살아 가야 진짜 유산균'이리는데, 과연 화장품 속 좋은 성분들은 피부 속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 걸까?

photographer PARK JAE YONG
editor LEE SUNG JIN

좋은 화장품이란 무엇일까? 오랜 연구 끝에 개발한 효능이 믿음직스러운 성분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 성분을 피부 속 깊이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술력까지 더해져야 비로소 완벽한 화장품이라고 할 수 있다. 화장품 브랜드에서 성분 연구와 더불어 침투력이 뛰어난 전달체를 연구하는 것도 그 때문. 리포솜이 거기에 해당된다. 물을 좋아하는 친수성과 물을 싫어하는 소수성으로 이뤄진 분자가 물에 닿으면 친수성을 띠는 부분은 물에 접근하려고, 소수성을 띠는 부분은 물을 피하려고 각자 그들끼리 응집하며 이중층의 구조가 생기는데, 속이 빈 방울 같은 이 구조를 리포솜이라고 한다. 대부분 구형이나 타원형이고, 크기는 매우 작은 것(0.025 μ m)부터 큰 것(2.5 μ m)까지 다양하며 층의 수에 따라 단일층, 이중층, 여러 개의 이중층 등으로 구분된다. 재미있는 점은 이 빈 공간에 향미생물, 항산화 물질, 불안정한 물질 등 여러 가지 성분을 넣을 수 있다는 것. 이뿐 아니라 리포솜이 세포에 닿으면 세포막을 구성하는 인지질과 섞이면서 리포솜 내부와 세포 내부가 서로 연결되어 물질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생리 활성 성분 수송체, 즉 약물 전달 시스템으로

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당달아 좋은 성분을 피부 속까지 잘 전달해야 하는 화장품 분야도 리포솜을 적극 활용하는 중이다.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같은 고분자 성분이나 불안정한 성분들을 리포솜 속에 넣으면 피부 속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스며들 뿐 아니라 장시간에 걸쳐 적절한 만큼의 성분을 계속 방출시키기 때문. 피부 생체막과 친화적인 구조로 자극이 적고 친유 성분과 친수 성분을 모두 피부 속까지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젊고 아름다운 피부를 위해 연구를 거듭하고 있는 헤라 역시 20여 년의 연구를 집약해 선보인 에이지 어웨이의 에스테틱 라인에 이 리포솜 공법을 활용했다. 에스테틱에서 전문 관리를 받은 듯한 효과를 주는 안티에이징 성분을 리포솜 속에 넣은 것. 에이지 어웨이 에스테틱 BX83 리포솜은 83%에 달하는 리포솜 솔루션으로 BX 펩타이드와 리얼 콜라겐, 썬 EGF의 안티에이징 유효 성분을 피부 친화적으로 전달한다. 부드러운 텍스처로 유연하게 롤링되다가 피부에 흡수된 뒤에도 탄력막을 형성해 피부를 팽팽하게 당겨주는 것도 헤라 에이지 어웨이 에스테틱 라인이 지닌 장점이다. **10**

헤라 에이지 어웨이 에스테틱 BX83 리포솜, 40ml, 12만원.
리포솜 공법을 활용해 무너진 피부 탄력을 팽팽하게 잡아주는 안티에이징 기능성 세럼.

사랑을 부르는 향기

남녀가 서로에게 끌리는 감정을 우리는 사랑이라 부른다.

그런데 이 사랑을 좀 더 강렬하게 혹은 더 빠르게

블러일으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향기는 이럴 때 유용한 사랑의 힘이 되어줄 것이다.

writer JOYAROMA

냄새는 수천 마일 밖과 그동안 살아온 모든 세월을 가로질러 당신을 이끌어 나르는 강력한 마법사다. - 헬렌 켈러

현재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혹은 사랑에 빠지길 바란다면 향기에 좀 더 대담해질 필요가 있다. 누구나 한번쯤 길거리를 건다가 코끝을 스치는 향기가 뇌리로 이어져 목뿤가 뻗뻗해지는 듯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지 않을까. 나만의 설레는 향기를 잊지 못해 그 향기가 나는 사람을 뒤쫓는 황당한 시도를 하기도 하고, 그 향기를 찾기 위해 백화점 향수 코너를 발이 부르드도록 헤매기도 했을 것이다. 그렇다. 향기만큼 기억을 오랫동안 지배하는 것도 없다. 후각이 가진 이런 예민한 특성은 사랑이라는 감정과 만났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 첫사랑의 감정은 가벼우면서도 새콤달콤한 향기와 함께 추억이 되고, 아련한 짝사랑은 진하게 남은 담배 냄새마저도 그리워하게 만든다. 하지만 어떤 이야기도 담고 있지 않은 향기라면 나중에 말았을 때 처음과 똑같은 흥분을 느낄 수 없다. 향기는 당시의 날씨와 기분은 물론이고 그날의 공기나 분위기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마련이니깐. 그러니 사랑에 빠졌다고 모든 향기가 좋게만 작용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사랑 특유의 감정적, 육체적 이끌림을 제거하고, '그 사람의 향이 싫어서', '체취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참을 수 없는 냄새 때문에' 관계를 망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결국 아무리 향이 좋고 값비싼 향수라 할지라도 서로 맞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만 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새로운 연인이 생기면 무조건 자신이 좋아하는 향수를 사다 안기고 이를 강요한다면 다시 생각해볼 것. 향기는 환경도 환경이지만, 개인의 컨디션에 따라 다르게 향을 발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향수를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 한 가지 향수만을 고집하지 않는다. 그날그날 기분이나 몸 상태에 따라, 날씨에 따라, 만나는 사람에 따라 다른 향수를 뿌리고, 때론 뿌리는 부위에 조금씩 변화를 주기도 한다. 이러한 향은 개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향수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직접 뿌려봐야 한다. 손목과 귀뒤는 가장 쉽게 향을 테스트할 수 있는 곳이다. 단 뿌린 뒤 절대 문지르지 말고 1~2분 그냥 두어야 한다. 헤어 브러시에 향수를 뿌리고 머리를 빗으면 향을 은은하게 오래 유지할 수 있다. 만약 남자 친구가 향수를 진하게 뿌리는 편이라면 본인은 머리카락에만 향을 입히는 것이 좋다. 커플이 둘 다 향수를 즐긴다고 해도 서로 맞지 않는 향수를 뿌리면 자칫 최악의 향기가 날 수도 있다. 상대방이 파출리를 베이스로 사용한 향수를 즐겨 뿌린다면 본인은 베이비 파우더 향이 나는 향수는 자제하

는 것이 좋다. 반대로 과일 향 향수는 장미 향 향수와 잘 어울리지므로 상대방이 프루티 계열 향을 좋아한다면 본인은 장미 향의 플로럴 계열 향수를 뿌리는 것이 좋다. 이렇게 사람마다 내뿜는 향이 달라지는 원인에는 피부 타입도 한몫한다. 특히 유분과 수분의 양에 따라 향의 이미지나 강도가 달라진다. 피부가 건성이라면 청량감 있는 시트러스나 내추럴한 허브 향을 오래 붙잡아두기에 불리하나, 따뜻한 우디 향이나 오리엔탈 계열 향은 오래 고혹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반면 피부가 지성이라면 아무래도 동물적인 향 즉 앰버 향을 강하게 발산하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다. 만약 담배를 피우거나 커피를 하루에 세 잔 이상 마신다면 데이트할 때 우디, 시프레, 오리엔탈 향을 뿌리길 권한다. 저녁에 술자리에 가거나 흡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야 하는 비흡연자라면 가죽 향이나 앰버, 스파이시 우디 오리엔탈 계열 향수도 좋다. 술 마신 다음 날에는 코롱 타입의 시트러스 계열 레몬, 베르가모트 향수가 산뜻한 기운을 더해주며, 아니면 아예 뿌리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사실 향수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취향이다. 따라서 내가 좋다면 얼마든지 뿌릴 수 있다. 다만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하는, 진한 스킨십이 따라오는 데이트를 앞두고 있다면 좀 더 영민한 레이어링이 필요하지 않을까? 속옷이나 스카프, 재킷 안쪽에 향수를 뿌리는 것도 좋고, 향의 지속력이 떨어진다면 보습에 신경을 쓰길. 촉촉한 유·수분이 향기를 더 오래 잡아줄 것이다. 그리고 연구에 따르면 여자들은 자신의 오른쪽에서 나는 향기에 더 민감하다고 하니, 남자들은 여자의 오른쪽에서 서거나 앉으면 자신의 향을 더욱 매력적으로 어필할 수 있을 것이다. 10

TIP



▶ 구달 파리 뽀띠드 쉐리오드 퍼퓸 로즈 머스크와 복숭아, 배, 바닐라의 달콤한 향을 더한 향수. 30ml, 11만8천원.



▶ 구달 파리 뽀띠드 퍼퓸 파라과이 페티그레인의 거친 프레시함과 레더향이 어우러진 향수. 100ml, 21만4천원.



▼ 구달 파리 에투알 뉘 뽀띠드 퍼퓸 아이리스, 로즈, 라즈베리와 파우더리한 향이 어우러진 향수. 50ml, 19만8천원.



마음을 담은 특별한 가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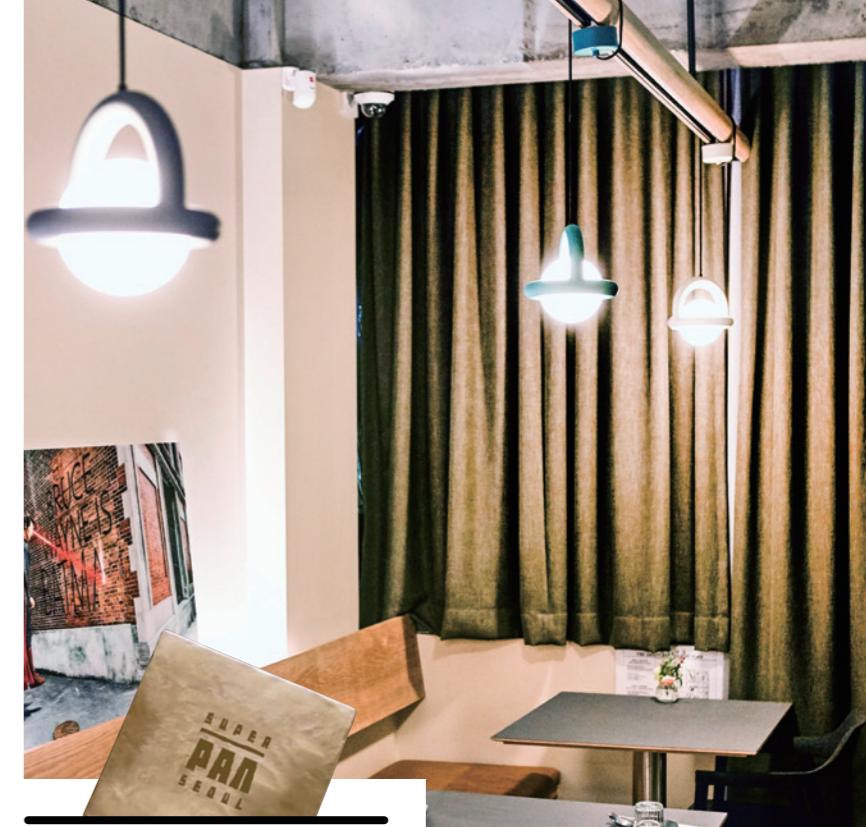
평생 정진해 쌓은 요리 실력으로 '밥심'을 전하는 셰프 우정욱.

자신의 능력으로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주길 바라는 그녀가 만드는 음식에선 늘 따뜻한 기운이 전해진다.

photographer HAN DONG WON
editor LEE SUNG JIN

코로나19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지난해 가을, 음식점계가 난항을 겪던 그때도 예약이 꽉 차서 쉽게 가지 못했던 곳이 있다. 바로 서울 이촌동에서 압구정으로 이전한 '수퍼판'이다. 서리태, 마스카포네, 시래기 리소토 등 흔한 재료로 특별하게 만든 한식을 선보이는 이곳의 오너 셰프 우정욱을 만났다.

"외할머니가 요리를 즐겨 하셨어요. 외삼촌을 위해 늘 너비아니를 구워 찬함에 넣어두시고, 북어 보푸라기를 만들곤 하셨죠. 어머니도 요리를 잘하고 자주 하셨고요. 딸 셋에 아들 하나를 키우셨는데, 지금처럼 떡볶이가 유명하지 않던 시절부터 우리 생일이면 늘 궁중떡볶이를 해주셨어요. 제가 스물아홉 살 때까지요. 그게 참 맛있었어요." 요리를 잘하는 두 분을 보고 자란 때 문인지 그녀는 언젠가부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요리를 하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했다고 한다. 대학 시절 봉사활동을 할 때도 음식은 언제나 그녀의 몫이었다고 한다. 홀아버지를 모시는 외아들과 결혼한 뒤에도 그녀의 요리는 계속됐다. 입맛이 까다로워 담백하면서도 맛있는 음식만 찾으시는 시아버지를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며 요리 솜씨가 일취월장했다고 한



@superpan_wjw
우정욱

10여년간 서울 대치동과 이촌동에서 가정식 요리를 가르치며 전설로 자리 잡은 일명 '대치동 요리 선생', 이촌동에 수퍼판을 오픈하고 누구나 좋아할 한식을 선보이다 지난해 가을 압구정으로 터를 옮긴 뒤 더욱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고 있다.



다. 가족 모임이 잦은 가정도 큰 역할을 했다. 그런 그녀에게 우연찮게 기회가 찾아왔다. 3명의 셰프와 함께 <맛있는 우리집 초대요리>를 쓰게 된 것. 당시는 가정식 요리를 자세하게 알려주는 요리책이 거의 없던 시절이라 이 책은 출간과 동시에 큰 인기를 얻었고, 이후 그녀에게 요리를 배우고 싶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전설의 대치동 요리 선생'의 시작이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요리 클래스는 '품나는 쉬운 요리'를 알려준다고 소문이 나며 널리 알려졌고, 부잣집 며느리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명성을 더해갔다. 이촌동으로 터를 옮긴 뒤에도 꾸준히 클래스를 이어오던 그녀에게 또다시 찾아온 기회는 컨설팅. 도곡동의 카페를 비롯해 몇몇 음식점의 컨설팅을 했지만, 그녀가 없는 동안 음식 맛이 변하거나 처음 정한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그





우정욱의 감각적인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수퍼판 내부.



녀에게 아쉬움이 많이 남은 도전이었다. "컨설팅을 하는 한편 1년 동안 큰 카페의 주방을 맡아 운영한 적도 있어요. 그 이후엔 몹시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건축가로 일하던 남편이 퇴직하며 마지막으로 동네에 조그맣게 음식점을 내보면 어떠냐고 권했어요. 그렇게 동네에 작게 시작한 것이 수퍼판이에요.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한 기운을 얻는

기쁜 장소가 되라는 뜻으로 음식점 상호에 '판'을 넣어 '수퍼판'이라고 지었죠." 동네 주민뿐 아니라 멀리서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만큼 큰 사랑을 받은 수퍼판은 6년 뒤 압구정으로 이전했다.

이촌동에 이어 새로 문을 연 수퍼판의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는 모두 남편의 솜씨. 벽을 장식한 작품들이 눈에 띈다 했더니, 선물받은 것도 있지만 상당수가 남편의 컬렉션이라고 한다. 남다른 빼어난 심미안은 두 사람의 공통점으로, 부부는 취향은 서로 다를지언정 둘 다 미술 작품 감상을 즐긴다. "잠깐 회사를 다니던 때가 있었는데, 퇴사하며 받은 퇴직금으로 결혼 후 바로 그림을 샀어요. 김영주 화백의 판화였죠. 이후 짬 날 때마다 남편과 함께 전시회를 보러 다니며 마음에 드는 작품을 수집했어요. 요리를 배우러 집에 오시는 분들도 무척 좋아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수퍼판의 재정을 담당하며 매일 함께 일하는 남편과 다들 때도 있지만, 그가 있어 음식점을 계속 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우정욱. 그렇다면 든든한 지원군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그녀의 음식은 뭐가? "다 잘 먹긴 하는데 떡국을 특히 좋아해요. 멸치 육수에 업진 살을 넣어 끓이는데, 맛이 특별하다고 좋아하는 분이 꽤 많아요. 이촌동 수퍼판을 폐점하기 3일 전부터 단골들에게 감사하는 의미로 코스 요리를 선보였는데, 그때도 마지막에 떡국을 냈습니다. 모두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잔치 기분을 내고 싶었거든요."

그녀에게 요리는 곧 사람들과 맺는 관계다. 누구랑 어떤 음식을 먹을지, 어떻게 나눠 먹을지를 생각하는 것이 무척 즐겁다고 한다. 일

주일에 한 번 쉬는 일요일에도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 요리를 대접하는 것이 일상이 된 것을 보면 음식이 그녀에게 주는 기쁨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인 듯하다.

"음식을 하면서 늘 하는 생각이 있어요. 손님들이 제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좋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요. 그것이 제 소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힘들 때도 있지만 제가 가진 이 능력을 잘 활용해서 세상과 나눠야 한다고 다짐하며 힘을 얻습니다." 환한 웃음으로 정성껏 만든 음식을 내놓는 우정욱 셰프. 그녀의 음식이 유독 따뜻하게 여겨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 **10**

우정욱 셰프가 추천하는 설날 요리

TIP



포테이토 전복초

재료 전복초: 전복 4마리, 화이트 와인 1큰술, 소고기 아롱사태 100g, 양파 1/4개, 대파 약간
조리장: 간장 2+1/2큰술, 설탕 2큰술, 매실청 1작은술, 다진 마늘 1/2작은술, 참기름 1/3작은술, 꿀 1작은술, 후춧가루 약간
고명: 다진 잣 2큰술
매시트포테이토: 감자 500g, 우유 2컵, 생크림 1/2컵, 소금 1큰술, 설탕 1큰술, 버터 1큰술

1. 냄비에 전복과 물, 화이트 와인을 넣고 30분간 끓인다. 전복을 건져 껍데기를 떼어내고 이빨을 제거한다. 내장을 분리한 전복 살을 깨끗이 씻어 큼직하게 저며둔다.
2. 물에 양파 1/4개와 대파를 넣고 끓인다. 끓으면 아롱사태를 넣고 30분간 삶은 뒤 10분간 뜸을 들인다. 삶은 고기를 얇게 저민다.
3. 팬에 조리장 재료를 넣고 끓인다. 끓으면 전복과 저민 아롱사태, 전복 내장을 넣고 조리장을 끼얹으며 윤기가 날 때까지 조리한다.
4. 껍질을 벗겨 얇게 썬 감자를 참기름, 버터 1큰술에 볶다가 우유를 넣어 10분 이상 끓인다. 여기에 생크림과 설탕을 넣어 한소끔 끓인 후 믹서에 간다.
5. 접시에 매시트포테이토를 깔고 전복초를 올린 뒤 잣을 뿌려 장식한다.



토마토 김치 리소토(2인 기준)

재료 홀 토마토 1컵, 잘 익은 김치 썰어서 1컵, 애호박 100g, 다진 양파 3큰술, 리소토용 쌀 120g, 마늘 2쪽, 치킨 스톡 2컵, 버터 2큰술, 오징어 1/3마리, 타임 조금, 그라노파다노 치즈 넉넉히

1. 홀 토마토를 으갠다. 기름에 마늘을 볶다가 으갠 토마토와 허브(있을 경우)를 넣고 2분간 끓인 뒤 불린 쌀을 함께 볶는다.
2. 여기에 양파, 호박, 김치를 넣고 볶다가 치킨 스톡을 조금씩 부어가며 약한 불에 끓인다.
3. 밥알이 씹힐 정도로 익으면 버터를 넣고 불을 끈다.
4. 오징어는 소금, 후추, 타임(있을 경우)에 재워둔다. 프라이팬에 버터와 기름을 약간 넣은 뒤 센 불에 오징어를 구워낸다. 동그랗게 썰어 리소토 위에 올리고 국물을 붓는다.
5. 치즈를 그라에이티어에 갈아 올린다.

HAIR: CHO SO HEE, MAKEUP: BAE HYE RANG



**차와 함께하는 휴식처
티.노마드**

도에 작업을 주로 하는 '노마드 아트 앤 크래프트'가 망원동 한 골목에 위치한 건물 2층에 찻집을 오픈했다. '티.노마드'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누구든 도심 속 유목민처럼 편안히 둘러 차를 맛보는 곳을 지향한다. 차선으로 고운 거품을 내는 '겨울'을 하며 말차를 만들거나, 호지차 등을 우려며 차와 함께하는 시간에 집중할 수 있다. 생화를 베이스로 블렌딩한 '노마드 차도 꽃 향이 좋아 찾는 이들이 많다. 다식으로 제공하는 팔방 '노마드군'은 붉은팥을 삶아 만든 소를 넣어 맛이 삼삼하다. 고즈넉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공간에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더한 음악이 어우러져 마음이 한결 평온해진다.

주소 서울시 마포구 포은로 112 2층
문의 02-545-5084



디저트가 맛있는 찻집

팔렌타인데이, 초콜렛 보다 맛있고 정겨운 티와 디저트가 있는 공간을 찾았다.

editor KIM SUN HEE

**물결을 바라보듯
더 이랑 티 라운지**

물결처럼 줄줄이 오목하고 불룩한 모양을 가리키는 단어 '이랑'이라고 이름 지은 '더 이랑 티 라운지'. 물이 잔잔히 고여 있는 오브제를 테라스에 비치한 이곳은 물결을 바라보는 순간의 평온한 마음을 느끼게 한다. 일본, 스웨덴, 대만 등 다양한 산지에서 들여온 차를 제공하는데 특히 장미, 히비스커스, 과일 청을 블렌딩한 '코디얼 레드', 백모단에 복숭아와 엘더플라워를 더한 '샴페인 백차'는 차를 처음 접하더라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케이크, 크림 브륀레, 사과 과육편을 비롯해 직접 만들어 선보이는 디저트는 달지 않아 차와 잘 어울린다.

주소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107 5층
문의 010-9106-9206



**시간이 멈춘 찻집
차차 티 클럽**

'차차 티 클럽'은 차를 테마별로 상자에 담아 선보이는 온라인 차 큐레이션 서비스 '차차'가 마련한 첫 오프라인 공간이다. 차차에서 소개하는 모든 차를 직접 우려 마시거나 한쪽에 전시된 다구를 둘러본 후 구매할 수 있다. 인공적으로 향을 더하거나 블렌딩하지 않은 잎차를 제공하는데, 차에 익숙하지 않은 손님에게는 산뜻한 꽃과 꿀 향이 느껴지는 백차 '백호은침'이나 과일 향이 은은하게 올라오는 청차 '대홍포'를 자주 권한다. 다식 중에서는 쌀가루를 찌 만들고 말차와 단호박으로 맛을 낸 '설기 카스텔라'가 제일 인기가 많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467길 13
문의 070-7755-4758



주소 서울시 종로구 창의문로 137 3층
문의 02-391-9823



**고요한 차의 공간
이음 티 하우스**

여백의미를 살려 정갈하게 꾸민 인테리어와 통유리 창 너머로 보이는 풍경이 고요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이음 티 하우스'. 차수입사 '이음'이 제공하는 차를 직접 우려 마실 수 있는 공간이다. 90여 분 동안 진행되는 '티 테이스팅 코스'를 예약해 세 가지 차를 음미해도 좋다. 대만 고산 지역에서 생산된 '합환산 무계', 숲으로 가열하며 차의 새로운 맛과 향을 이끌어내는 '석문철관음 경지홍심' 등 산지에서 직접 공수해온 차를 내어주고 계절마다 새로운 차도 선보인다.



**꿈같은 티타임
시모네타의 정원**

화가 보티첼리의 작품 '비너스의 탄생'에 등장하는 여성 시모네타에서 영감을 얻은 '시모네타의 정원'. 꿈의 한 장면처럼 몽환적인 공간을 떠올리며 완성한 찻집으로, 커다란 회전목마 오브제 앞이 포토 존으로 꼽힌다. 바리스타와 파티시에 등 분야별 전문가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 베르가모트 향이 매력적인 '얼그레이 프렌치 블루', 체리와 블루베리 맛이 느껴지는 '스칼렛'을 포함한 차는 각각 특유의 풍미가 드러나며 라테를 비롯한 커피도 인상적이다. 마카롱, 마들렌, 타르트 등으로 구성된 '파나티스모 세트'와 세 종류의 선데이도 곁들여 풍성한 티타임을 즐겨볼 것. **D**



주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122길 42
문의 @simonettas_garden





#두피클링케어
#두피안티에이징
#상쾌한세정력

@xohaeni
두피와 모발에 산뜻한
청량감과 풍부한
영양까지! 프리메라의
바이옴스칼프 샴푸와
모이스처라이저로 보습과
윤기, 탈모 증상 완화까지
케어해보세요.



@sangvely_luv
찾은 염색과 드라이로
걱정되던 두피와 모발.
클링감이 돋보이는
시원한 샴푸로 민감한
두피를 미리미리 케어하고
#모이스처라이저를
로션처럼 발라서
두피 케어까지!
2021년부터는 #프리메라
#바이옴스칼프로 관리
시작했어요.

프리메라 바이옴스칼프 클링 샴푸 380ml, 프리메라 바이옴스칼프 모이스처라이저 76ml 2종 기획세트 4만원

생생한 제품 평가

프리메라 바이옴스칼프 클링 샴푸와 모이스처라이저를 사용해본 품평단 10인의 솔직한 소감.

photographer CHOI MIN YOUNG
editor AHN SAE ROM

@iam_soojung_
바이옴스칼프 샴푸로
두피를 세정하고
모이스처라이저를 샴푸
후 물기가 없는 모발에
발라 흡수시키고 드라이한
후 한 번 더 덧발랐더니
두피가 개운하고 클링감이
느껴지는 건 물론, 푸석했던
머릿결도 활량이네요!



@iam_beautifulstar
프리메라 바이옴스칼프
샴푸와 모이스처라이저는
패키지 디자인도 깔끔하고
향이랑 클링감도 좋아요.
보습과 윤기를 주고 탈모
증상은 완화해주는 효과도
마음에 들어요.



@hj.0608
요즘 두피가 예민해서
스칼프 케어 기능이 있는
샴푸를 사용해보고
싶었는데 프리메라
바이옴스칼프 샴푸와
모이스처라이저로
관리하니깐 좋아요. 두피도
개운하고 모발도 한결
부드러워진 느낌이 들어요.



@pretty6666
향기롭고 클링감도
좋은데 두피 항산화에
탈모 관리까지 가능해요.
샴푸하고 영양 보습
코팅 모이스처라이저로
마무리해주면 제대로 된
홈케어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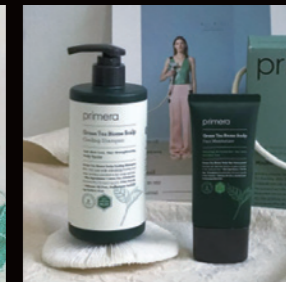
@mydmyd
기초 제품만 유명한
줄 알았는데!
#프리메라에서 나온
#바이옴스칼프 샴푸랑
트리트먼트 사용해보니까
패키지 디자인부터 향,
클링감까지 다 맘에
들어요.



@s_m0524
환절기부터 크나큰
나의 고민은 바로
빠지는 머리. #프리메라
#바이옴스칼프 #샴푸와
#모이스처라이저로
관리하는 중이에요.
두피부터 모발 끝까지
프리메라 해보세요!



@jelly_1108
요즘 #프리메라
#바이옴스칼프 #샴푸로
이틀에 한 번 두피 케어를
해요. 기분 좋은 녹차 향에
탈모 증상 완화 샴푸라
꾸준히 쓰면 좋겠다 싶었죠.
샴푸하고 타월로 말린 뒤엔
바르는 #모이스처라이저로
마무리하는데 수분
로션처럼 촉촉한 사용감이
무척 마음에 들어요.



@flower.jini
염색하고 푸석푸석
해지고 머리 정전기도
심했는데 #프리메라
#바이옴스칼프 #샴푸
#모이스처라이저
쓰고 부드러워졌어요.
녹차 유래 성분을 담아
자극적이지 않고
향도 좋아요.

Sulwhasoo



설화수 자음생 2종 보은 세트

설화수 진설 2종 세트

설화수 자음생 라인을 모두 체험할 수 있는 풀 세트. 자음생수 125ml + 자음생유액 125ml + 자음생수 15ml + 자음생유액 15ml + 자음생에센스 8ml + 자음생크림퍼펙팅 5ml + 자음생아이크림 3ml로 구성. 17만원.

설화수의 프리미엄 한방 안티에이징 라인인 진설 라인을 모두 체험할 수 있는 세트. 진설수 125ml + 진설유액 125ml + 진설에센스 4ml + 진설크림 4ml + 진설아이크림 4ml + 진설마스크 15ml로 구성. 26만5천원.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설 선물 세트

다가오는 설,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알찬 선물을 미리 소개한다.

editor CHOI HYANG JIN

AMORE PACIFIC



아모레퍼시픽 라인에이징 코렉터 단품 기획 세트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앰플 스타터 컬렉션

30년 차나무 뿌리 사포닌의 놀라운 힘으로 선노화를 잡아주는 라인에이징 코렉터 기획 세트. 라인에이징 코렉터 30ml + 타임 레스폰스 라인의 토너 31ml + 플루이드 31ml + 크림 8ml로 구성. 30만원.

AbsoluTea™의 강력한 안티에이징 효과를 경험할 수 있는 스타터 세트. 타임 레스폰스 앰플(0.6g + 7ml) x 2페어 + 타임 레스폰스 스킨 리저브 크림 15ml로 구성. 32만원.

HERA



헤라 시그니아 크림 스페셜 기프트 세트

헤라 시그니아 워터 에멀전 2종 기프트 세트

헤라의 대표 안티에이징 라인인 시그니아를 크림 중심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세트. 시그니아 크림 60ml + 시그니아 워터 75ml + 시그니아 에멀전 50ml + 시그니아 세럼 10ml + 시그니아 아이트리트먼트 15ml로 구성. 30만원.

시그니아 라인의 시작인 워터와 에멀전을 중심으로 한 기프트 세트. 시그니아 워터 180ml + 시그니아 에멀전 150ml + 시그니아 워터 75ml + 시그니아 세럼 10ml + 시그니아 크림 10ml로 구성. 18만5천원.

primera



프리메라 씨드 마스크 로터스 30매 세트

프리메라 그린티바이옴 스킨케어 세트

손면 시트에 영양이 풍부한 에센스가 듬뿍 묻어 있어 피부를 촉촉하게 지켜주는 마스크 30매로 구성된 선물 세트. 3만8천원.

단 2가지 제품으로 탈모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샴푸와 모이스처라이저 세트. 그린티바이옴 스킨케어 샴푸 380ml + 그린티바이옴 스킨케어 모이스처라이저 75ml로 구성. 4만원.

VITALBEAUTIE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골드 대용량 바들 기획 세트

슈퍼콜라겐 더블 기획 세트

유기농 녹차 성분이 체지방과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에 도움을 주는 메타그린 골드를 대용량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획. 520ml x 450정. 22만원.

흡수가 빠른 저분자 콜라겐이 가득 담긴 콜라겐 앰플 세트. 25ml x 70앰플. 20만원대.



1



2



3

이달의 필수템 미리보기

에디터가 간간하게 고른 2월의 필수템.

photographer CHOI MIN YOUNG
editor CHOI HYANG JIN

- 1. 헤라 멜라솔브 프로그램 딥 클렌징 폼**
노폐물을 제거하는 동시에 맑고 깨끗한 피부로 바꿔주는 클렌징 폼. 200g, 3만2천원.
- 2. 바이탈뷰티 슈퍼콜라겐**
슈퍼콜라겐 흡수가 빠른 저분자 콜라겐이 풍부하게 담겨 있어 콜라겐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앰플. 25ml×30앰플, 10만원.
- 3. 설화수 명의본초앰플**
귀한 한약재 성분이 피부 본연의 힘을 강화해 운택한 피부로 바꿔주는 8주 집중 케어 프리미엄 앰플. 8ml×4병, 20만원.
- 4. 설화수 진설크림**
바르자마자 피부에 힘이 생겨 탄력이 붙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럭셔리 안티에이징 크림. 60ml, 47만원.
- 5. 바이탈뷰티 명작수**
인삼의 뿌리부터 열매까지 모두 담아 신체 본연의 생기와 활력을 되살려준다. 50병, 26만원.
- 6. 아모레퍼시픽 트리트먼트 엔자임 필 클렌징 파우더**
효소 파우더가 부드럽게 각질과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파우더 타입 클렌저. 55g, 6만8천원.



6



5



4





HERA

ROUGE HOLIC

NEW CLASSIC INSPIRED BY CONTEMPORARY SEOUL